

보시, 탐욕적 자본주의 치유의 묘약

貪心 즐기기

탐심
-더 나누자

욕구와 탐욕

식탐이 많은 사람은 점심을 먹으려 가서 음식을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 이상을 먹고 배탈이 난다. 식탐은 배탈에 그치지만 권력과 돈과 명예에 탐심을 내면 잘 나가던 유명 인사들이 패망한다. 국가와 같은 큰 집단이 탐욕을 부리면 나라가 패망하고 인류가 불행해진다.

그러나 탐욕과 욕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취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아니라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는 탐욕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탐욕이 권력, 재산, 명예 등 감각의 대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붓다는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감각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붓다의 교설에 의하면 대상에 의해 촉발된 감각에는 즐거운 감각과 괴로운 감각,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각이 있다. 그런데 즐거운 감각에는 탐욕의 성향이 있고 괴로운 감각에는 혐오의 성향이 있으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각에는 무지의 성향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발달과정을 보면 어린 아이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며 그것

이 충족되면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과 불만족을 느낀다. 아이는 성장하여 사람들과의 유대를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즐거운 감각적 욕구를 욕망으로 변화시킨다. 동물은 욕구가 충족되면 대개 거기서 그치지만 인간은 욕구를 넘어 그 이상을 추구한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러나 욕구를 벗어난 탐욕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탐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끝없는 불만족과 고통 속에서 산다.

알맞은 양을 깨치기

탐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붓다는 제자들에게 먼저 수시관(數息觀)과 부정관(不淨觀) 등 탐심의 대상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관법(觀法)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에게 약간 부족하게 느끼는 지점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알맞은 양을 깨쳐서 그만따만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욕구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감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탐착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탐심을 치유하는 붓다의 대중(對衆) 요법은 탐심의 대상과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탐심을 포함한 번뇌를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 방법으로 수



정 천 구
서울대지텔대 석좌교수

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 성인(聖人)의 지위에 오른 수많은 수행자가 있었음을 불경은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vipassana, 觀)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그 탁월한 대중 치유법 때문이라고 본다.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 관법을 행하게 하면 탐심의 정체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필요한 것과 필요한 양만을 취하게 되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관법은 탐심에 대한 대중요법은 되지만 병의 근원을 뽑아내는 근본적인 치유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의 그물망과 같이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어 혼자만 탐심

을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시-더 나누기

붓다는 근기가 성숙한 제자들을 위해서는 탐심의 근원적 해결 방법으로 대승(大乘)의 덕목인 보시를 가르치셨다. 보시는 대승불교의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 제일 바라밀이다. 탐진치의 근원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오랜 동안의 습관, 즉 업의 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받기만 하는 습관을 주는 습관, 나누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탐욕의 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사람들이 받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복(福)을 짓고(作福) 닦으라(修福)고 가르친다. 그런데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식 때문에 어느 때인가 복을 받으라고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복은 받고 싶다고 먼저 지어야 한다.

금강경은 선일견이나 편견 등 상(相)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이 허공과 같이 무량하다고 설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실제로 주고 안주고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선 무조건 주는 마음을 내면 쌓였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병고에서 벗어나고 재앙이 소멸되며 문제해결의 실마

리가 풀린다. 보시의 효과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모든 중생에게 확산되어 전 우주적으로 파급된다.

붓다는 자신이 보시의 습관을 생활화했다. 세존은 결식해온 음식을 3등분하여 3분의 1은 육자중생에게 3분의 1은 수중중생에게 고수례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자신이 드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수례 하는 습관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먹는 밥을 조금 떼어내어 산이나 냇물의 정갈한 곳에 놓아두는 헌식을 했다. 나누는 문화다.

보시는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이야기와 같이 가난한 자의 정성스러운 작은 보시가 복덕이 더 클 수 있다. 부유한 자의 보시는 자기가 지은 업장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고 가난한 자의 보시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보시는 금욕적 자본주의에서 시작되어 탐욕적 자본주의로 변모한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묘약(妙藥)이며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원동력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받는 마음 대신에 주는 마음을 내고, 받는 습관을 주는 습관과 나누는 습관으로 바뀔 때, 병든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피로사회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그리고 분노사회는 인심이 훈훈한 정다운 사회로 변모해 갈 것이다.

분노는 자기 업... 스스로 소멸해야

瞋心 즐기기

진심
-더 낮추자

평생을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슴이 막히고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고, 진정 깨달음이 있는가 물론 깨달음은 각자(覺者)를 의미한다. 그러한 각자(覺者)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분뿐인가? 수많은 많은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은 사람은 많고 누구나 부처님의 수행을 따르면 깨달을 수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불성은 청정한 마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은 그러한 청정한 마음이 계속 유지하여 차별없이 하나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할인데, 어찌 우리마음은 이렇게도 변하고 있는가? 물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평정되고 편안하지 않고 있는 것임은 확실하다.

무상(無常)한 이 마음을 무상(無常)함을 깨닫는 것, 환순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계에 부닥치더라도 평정하고 일심(一心)을 유지하는 상태, 그리하여 편안하다, 일심이 다, 삼매(三昧)다 하는 것도 알지 못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 마음자리가 각자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중생이요 무명번뇌의 존재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탐욕의 마음 분노의 마음 내어 수행해야 한다.

수행에는 승속(僧俗)이 따로 없다. 승(僧)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속인(俗人)과 다를 게 없

으며, 속인(俗人)도 수행을 하면 출가승(出家僧)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수행하는 풍토 이것이 불국토(佛國土)의 지름길이다.

나는 생각한다. 불교(佛敎)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무엇을 깨닫는가!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이 어떤 것이기에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한데 홀연히 무명이 덮혀 그 깨끗하고 맑음이 언제나 맑게 들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믿음도 바로 이 청정함을 믿는 것이다. 이 무명이란 무엇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탐, 진, 치(貪, 瞋, 癡) 세가지 독한 마음의 산물이다.

우리 마음은 날고 멈추고, 변화하고, 사라진다(生, 住, 異, 滅)라고 한다. 이 세계가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이듯이 마음은 일어났다 변화되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이러한 것은 깨닫고 그렇게 보고 집착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립도 투쟁도 없어질 것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마음에 집착하여 온갖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일어나, 살인, 강도, 음란한 성폭행, 거짓말 악한말 이간질 말 사기 하는 말 등으로 결행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탐욕의 마음 분노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가장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진에의 마음은 우리인간의 근본 번뇌의 하



송 석 구
前 동국대 총장

나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하게 여겨 몸과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심리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물질적인 것(色) 나쁜말(聲) 냄새(香) 맛(味) 감각(觸) 등의 형상적인 것과 보이지 않지만 다른 하나는 의식작용이다. 이러한 경계에 자기마음과 다르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것은 아주 무서운 행위로서 나타나야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두가지말 악한말 속이는 말을 방지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인 것이다. 생각생각을 잘 단속하여 이러한 악행을 하지 않아야 만이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마음을 가다듬고 억지로 단속해야만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만 그래도 아직 분노의 마음 자체까지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으니 그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내가 1990년에 동국대 총장직선에 임해보하여 압도적으로 일등을 한적이 있다. 그해 10월말에 이사회에서 총장선출이 있었는데 웬일인지(이유는 있었지만), 총장선출이 연기 되었다. 1991년 2월에 재차 총장선출이 사회가 열렸고 초보만해도 1등으로 교수회 추천을 받은 내가 유리하였다. 그런데 막상 표를 열고 보니 내가 한표가 적어서 낙방이 되었다.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가 모래알 씹는 기본의 상대였다. 그러나 거리를 헤벌 수 없지 않는가? 헤가 떨어질 무렵 집으로 갔다. 아이들은 없고 집사람 혼자 안방에 있었다. 나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게되면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면 분노가 폭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좌선을 하려고 결가부좌를 했다. 아무리 화두를 들춰해도 배신의 증오가 눈에 어리거린다.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이 너무 간사하고 의리가 없고 정의가 없다는 것인가? 목탁을

들고 염불을 시작했다. 고성염불 속에 문득 ‘이 결과는 나의 업장의 결과이다. 그 누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진 죄업을 갚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원망하는 것은 고통이다. 나는 오랫동안 수유리 화계사에서 매일아침 108참회와 함께 지장경·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었다. 지장경의 죄업 소멸이 머리속에 박혀온다. 나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부처님법을 실천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나의 전생의 업장이 이 일로 소멸되어 새로운 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나를 짊어지지 않은 분들은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진 분이요, 이제 이 고통으로 그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저녁늦게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분한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전생의 죄업과 빚을 이것으로 갚았읍니다. 업장소멸이 되어 마음이 편안합니다”하고 진정 참회를 하였다. 물론 그후에도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났지만 죄업소멸로 이겨냈다. 모든 업은 내가 짓는 것이다. 풀어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오온(五蘊)이 본래공(本來空)이다. 고액(苦厄)은 없다. 내가 만든 것에 속지말자.

‘무아’ 가르침이 자아중독 해독제

癡心 즐기기

치심
-더 비우자

경전을 비롯한 불서(佛書)를 보면, 불법(佛法)을 병 고치는 약 처방에 비유하는 대목을 흔히 볼 수 있다. 하기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종교에서나 성현들이 범부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인간과 세상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내용이다.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할 방법을 처방하며 치유과정을 인도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의술이 상통하는 셈이다.

부처님이 진단하는 중생의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는 무엇인가? 사성제(四聖諦)의 가르침에 그 진단과 처방의 요체가 담겨있다. 부처님은 중생의 삶이 온통 괴로움의 바다임을 보았고 그 원인은 갈애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팔정도를 처방하고, 이를 따르면 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사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갈애라고 했는데, 기실 갈애는 혐오와 짝을 이룬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좋아하는 것이 설정되면 자동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설정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양쪽 모두의 주체가 되는 것은 ‘나’ 즉 자아이다. 나한테서 우리라고 즐거움 것에 대해서는 탐욕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에를 일으킨다. 즉 탐욕과 진에는 모두 결

국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범부중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는 성을 내며 물리치는 태에다가 에너지를 온통 쏟아 붓는다. 그게 실은 괴로움을 생산해내는 활동인 줄을 모른다.

좋아하는 것을 가급적 많이 누리려고 싫어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면 즐거운 삶이지 그게 왜 괴로움이란 말인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함의 주체이며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나’라는 게 당초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아(無我)’의 가르침이 바로 그 예이다. 범부중생은 ‘나’를 당연하고 영원한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실체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저게 좋아’, 또는 ‘나는 이거 싫어’라고 쉽게 판단하고 선언한다. 그 판단을 절대시하면서 현상에서 누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온통 그 호오의 가름에다가 투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실은 독인 줄 모르고 오히려 애지중지하며 집착한다. 원효대사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세 가지 독물 같은 번뇌를 자기 재산으로 삼는다”(三毒煩惱爲自家財)고 한탄한 게 바로 그 얘기이다. 가히 심각한 중독 상태라 할 만하다.

중독(中毒)이 되었으면 해독(解毒)을 해야 할 수 있다. ‘디톡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해독을 뜻하는 디톡스피케이션



윤 원 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이 탐욕과 진에, 그리고 우치를 삼독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 중생에게 처방적이기 때문일 터이다. 그 처방적인 독을 범부중생은 독인 줄 모르고 오히려 애지중지하며 집착한다. 원효대사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세 가지 독물 같은 번뇌를 자기 재산으로 삼는다”(三毒煩惱爲自家財)고 한탄한 게 바로 그 얘기이다. 가히 심각한 중독 상태라 할 만하다.

중독(中毒)이 되었으면 해독(解毒)을 해야 할 수 있다. ‘디톡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해독을 뜻하는 디톡스피케이션

(detoxification)의 줄임말인데, 대체의학에서는 좀 더 특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즉 유해물질의 섭취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신진대사 과정에서 몸속에 생산되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여 독소를 빼는 조치를 가리킨다. 정신의 해독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평온케 하기 위해 명상을 하는 방법이 디톡스라는 구호 하에 상업적으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탐진치 삼독을 풀어내는 일이다. 탐욕과 진에는 다른 글에 맡기고 이 글의 임무인 어리석음의 해독 방법을 궁리해보자면, 궁극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서 자아에의 집착과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극복해야지만 어리석음을 떨치고 실상을 환히 아는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처방으로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한가로움 시간을 가급적 많이 또 자주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로움 시간이라 함은 빈둥빈둥 노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잠자는 동안을 빼고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지각과 감각과 관심과 신경은 오직 바깥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바깥으로부터 자극을 흡수하느라고 분주하다. 그 바

깍과의 상호작용만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짝없이 억지로라도 그 상호작용을 멈추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짝에는 회광반조(迴光返照)의 명상을 행하라는 것이다. 회광반조란 나의 관심과 지각과 감각과 신경이 온통 바깥으로만 향하던 것을 이제 거두어들여서 나 자신으로 향하게 하여 나 자신을 돌이켜 비추어보는 것이다. 그래야 나는 과연 누구이고 무엇인가, 내가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정말 나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타당한 건가, 등등 자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탐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불교에서 명상수련, 참선이 가장 기본적인 수행방법으로 되어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시각각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해도 먹고살기 힘든 판국인데, 웬 사치스러운 말씀이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표현이 한가로움 시간이니 어쩌니 했을 뿐이지, 그건 사실은 중생이 온전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 내속의 독소와 치열하게 싸우는 생존투쟁의 시간이다.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절박한 일을 두고 한가롭고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일 것이다.